

2011년 3/4분기

서울의 소득별·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전망
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오동훈 연구원 · likedeepblue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팀

I. 부문별 조사결과

1. 소비자태도지수
2. 미래전망지수
3. 고용 및 물가 전망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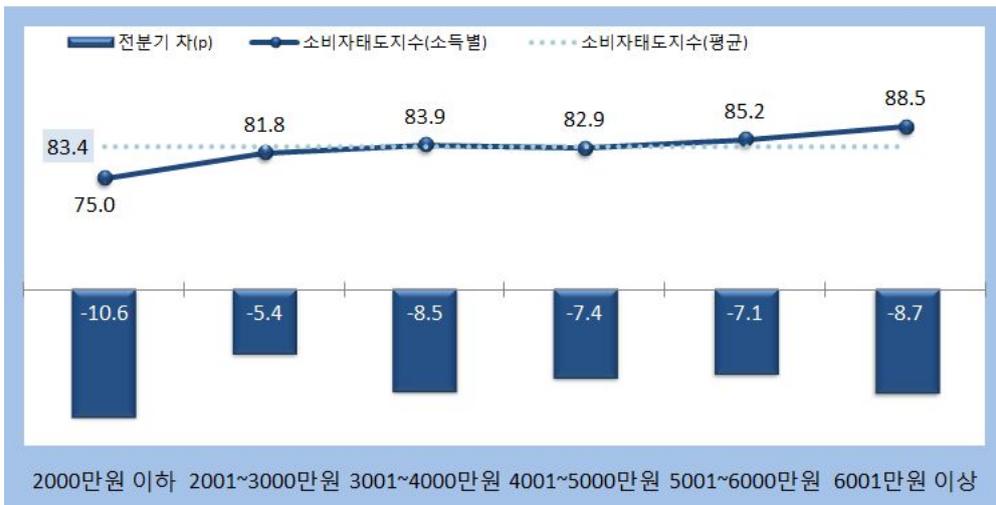
II. 정책적 시사점

* 각 지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(www.sdi.re.kr)에서 발간하는 「정책리포트」 98호(9월 19일)를 기초로 2011년 4/4분기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전망지수 결과를 소득별·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.

1. 부문별 분석결과

1. 소비자태도지수¹⁾: 2011년 3/4분기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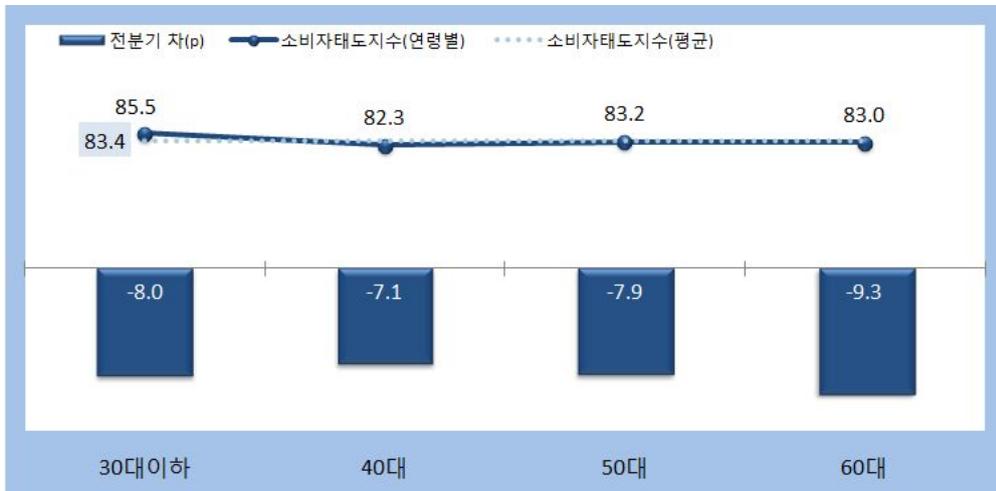
-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0년 4/4분기 101.0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하락
 - 전분기대비 7.9p 하락한 83.4를 기록하여 2009년 2/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유럽 재정위기,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안정 요인으로 경기침체 불안감 확대로 체감경기 악화
 - 2011년 3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기준치(100)를 하회
 - 소득별로 살펴보면,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, 2001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계층, 6001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의 체감경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
 -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
 -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은 전분기대비 하락폭(-10.6p)이 가장 크고,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민층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



(그림 1) 소득별 소비자태도지수

1)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, 경기, 내구재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로 기준치(100)를 상회할 경우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함.

-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30대가 경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- 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평균치(83.4)를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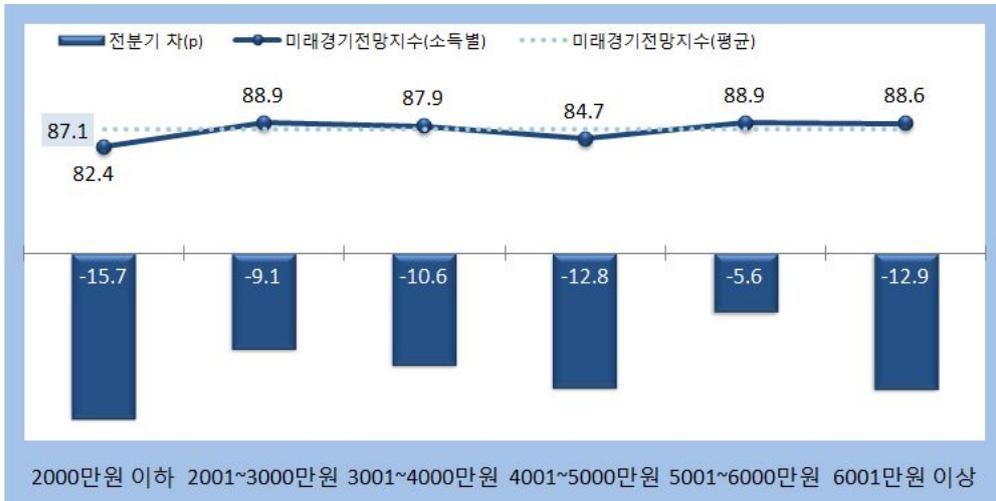


(그림 2) 연령별 소비자태도지수

2. 미래전망지수: 2011년 4/분기 서울 시민의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

1) 미래경기전망지수

- 서울의 「미래경기전망지수」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 - 「미래경기전망지수」 역시 전분기대비 11.3p 하락한 87.1로 2010년 1/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
- 소득수준별 「미래경기전망지수」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지수 하락
 - 2011년 3/4분기 유일하게 기준치(100)를 상회하며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던 6001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이 2011년 4/4분기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전 소득계층에서 약화된 것으로 조사
 -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이 미래경기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

(그림 3) 소득별 미래경기전망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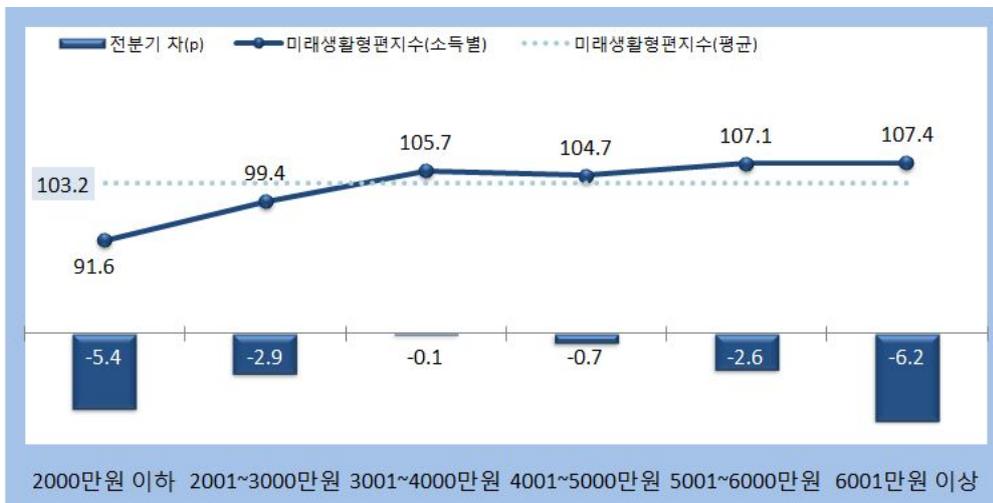
- 연령별 「미래경기전망지수」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전분기대비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
- 2011년 3/4분기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았던 60대 이상 연령층 역시 2011년 4/4분기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

(그림 4) 연령별 미래경기전망지수

2) 미래생활형편지수

- 서울의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기준치(100)를 상회
 - 2011년 4/4분기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분기대비 3.0p 하락한 103.2를 기록
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2010 4/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형편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소득계층별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- 3001만원 이상 계층에서 기준치(100)를 상회하며 향후 1년 후의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기준치(100)를 하회하며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으로 조사



(그림 5) 소득별 미래생활형편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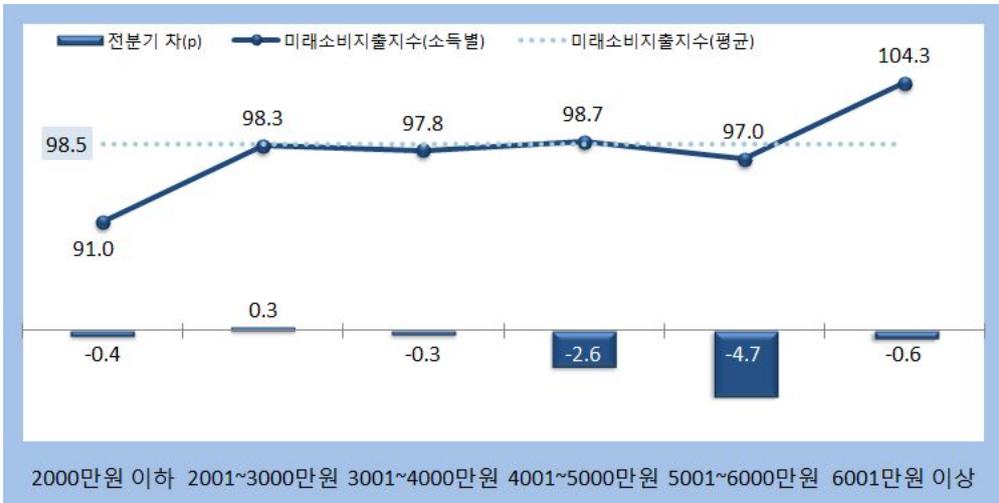
- 연령대에 따른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유일하게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노년층의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조사
- 상대적으로 30대가 미래생활형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

(그림 6) 연령별 미래생활형편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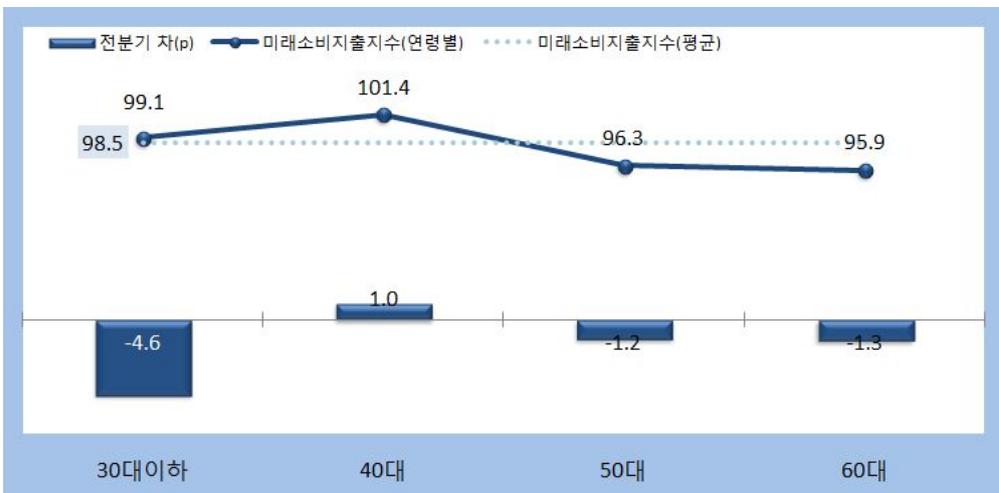
3) 미래소비지출지수

- 서울의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2011년 3/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2010년 4/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치(100) 주변에서 보합상태에 있어 향후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
- 품목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조사 결과 ‘교육/문화비(115.3)’, ‘교통/통신비(106.6)’, ‘식료품비(99.6)’ 순으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
- 소득수준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2001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하락
- 기준치(100)를 상회하는 소득계층이 2011년 3/4분기 4001만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2011년 4/4분기 6001만원 이상 계층으로 축소됨



(그림 7) 소득별 미래소비지출지수

- 2011년 4/4분기 40대 연령층의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가 기준치(100)를 상회하며 전분기 대비 1.0p 상승
- 4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상회하던 30대 이하 연령층의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가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부정적 전망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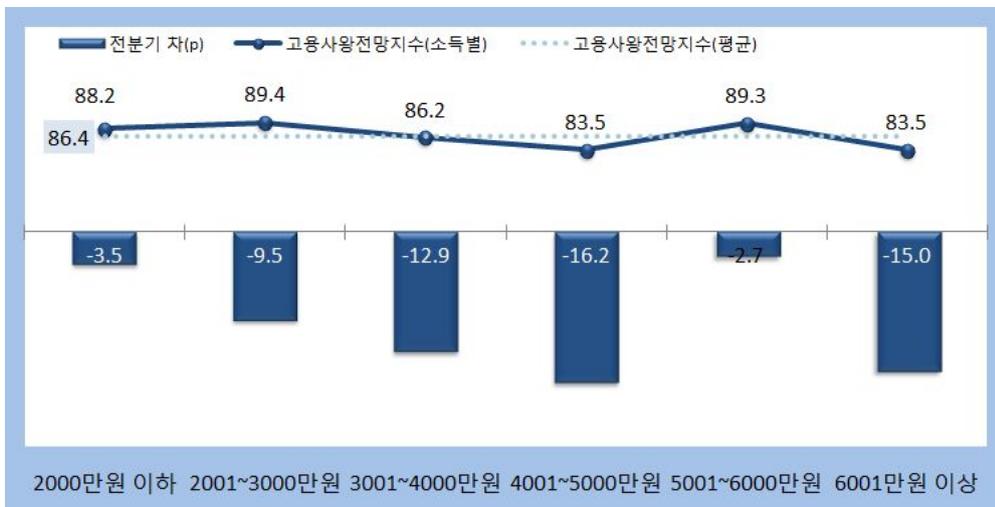


(그림 8) 연령별 미래소비지출지수

3. 고용상황 및 물가전망지수: 고용시장과 물가 불안 심리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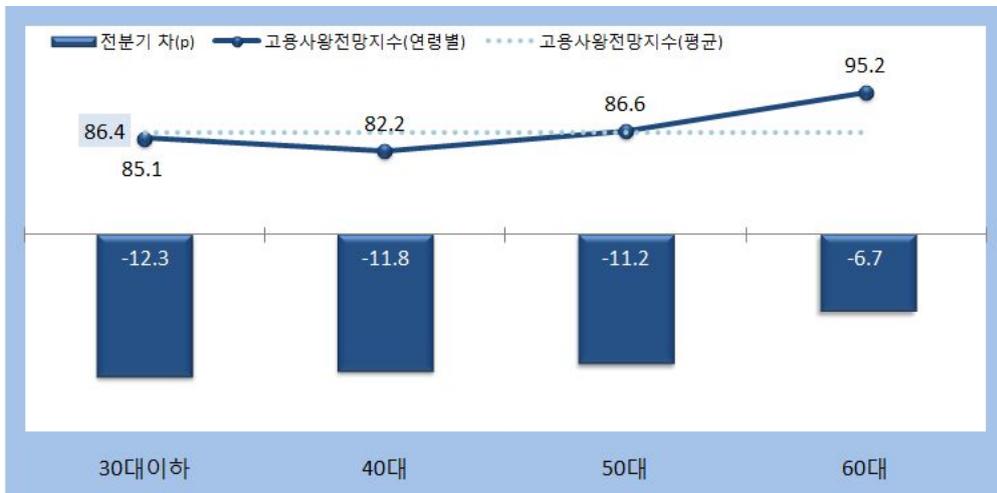
1) 고용상황전망지수

- 「고용상황 전망지수」는 2011년 2/4분기대비 10.8p 감소한 86.4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 주춤
 -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 동향에 비해 향후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-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기준치(100)를 하회
 - 소득계층별로 3001만원 이상 계층에서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하여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



(그림 9) 소득별 고용상황전망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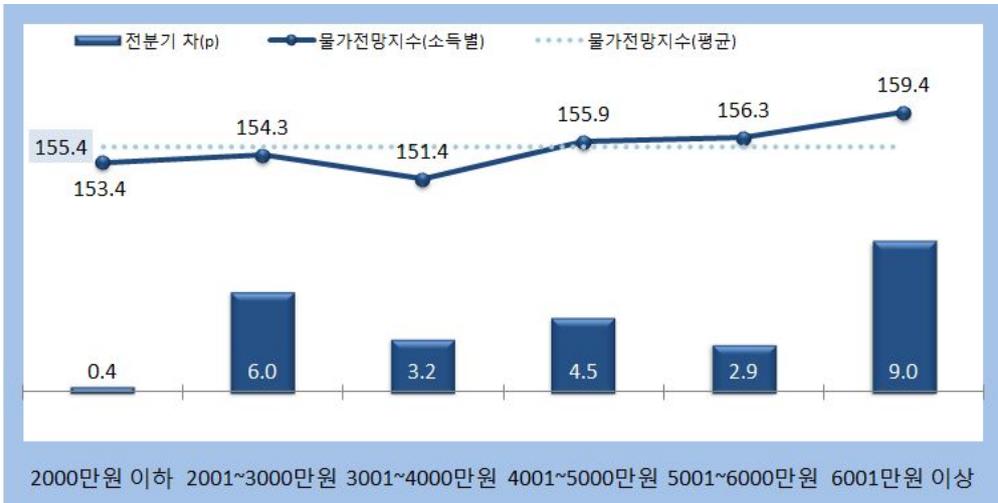
- 연령별로 살펴보면 취업에 민감한 30대 이하 청년층과 40~50대 중장년층 모두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하여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-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고용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



(그림 10) 연령별 고용상황전망지수

2) 물가전망지수

- 2011년 3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분기대비 4.9p 상승한 155.4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 반영
 - 2011년 2/4분기에 다소 안정되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 확대
-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향후 물가상승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
 - 소득별 「물가전망지수」를 살펴보면,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평균치(155.4)를 하회한 반면 4001만원 이상 소득계층은 평균치 상회
 - 2011년 3/4분기 다소 안정되던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물가 불안심리가 확대
 - 물가불안심리는 2001~3000만원 차상위 계층과 6001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물가불안심리가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



(그림 11) 소득별 물가전망지수

○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를 유지하던 50대 이상 연령계층 역시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 연령대로 물가불안 심리 확대

- 모든 연령계층에서 「물가전망지수」가 150 이상을 기록



(그림 12) 연령별 물가전망지수

II. 정책적 시사점

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 대책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책 지속

-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 취업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 필요
 -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
- 서울시가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시행하는 ‘청년창업 활성화 추진’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
-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와 잠재복지수요를 줄일 수 있는 ‘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’ 정책의 강화
 - 서울경제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 산업 비중이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과 내수 확대 유도
 -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
- 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육성 등 타 분야로의 업종 전환 및 유도 필요
-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지원할 수 있는 ‘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강화’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